

신규 부동산 정책 발표, 해외 유동성 긴축이 A주 시장 교란의 주요 원인

9월 A주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는 조정 국면으로 출발하며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잭슨홀 연례 심포지엄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기대가 반전됐다. CME FedWatch에 따르면 9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66%로 상승했으며,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IT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상단도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9월 4일 발표 예정인 8월 미국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9월 17일 연준의 정책회의는 미 국채금리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A주 성장주의 위험선호를 좌우할 전망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의 국채가 동반 매도세를 보인 점까지 감안하면, 해외 유동성 긴축은 9월 A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외부 교란 요인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8월 28일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부동산 기업의 차환 및 M&A 관련 금융수단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9월에는 부동산 산업 밸류체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주택 판매 및 자금조달 데이터를 통해 정책 효과가 확인될 전망이다.

A주 시장의 2026년 실적 시즌은 마무리됐다. 1H26 기준 A주 상장사의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전년 대비 18.57% 증가했으나 업종별 실적 차별화가 뚜렷했다. 특히 광모듈과 반도체 부품 업종의 2026년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40%, 65% 증가하며 AI 하드웨어 밸류체인이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

IT 섹터는 8월말 랠리 이후 견조한 밸류에이션 회복을 보였고, 9월 실적 가시화 구간에 진입하며 더 큰 차익 실현 압박을 받고 있다. 9월 초 화웨이와 애플이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폴더블 스크린과 차세대 칩이 해당 섹터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컴퓨팅 파워 메모리 섹터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2031년까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클라우드 공급업체들과의 장기계약을 위해 HBM 생산 능력의 70%를 묶어 두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현물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HBM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지쉬황은 RMB3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고, GigaDevice와 Montage Tech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중으로 이는 기업들이 장기적 가치에 대해 뚜렷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해외 유동성 관련 불확실성을 헤지하기 위한 고배당 자산에 주목할 것이 권고된다. IT 성장 섹터에서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뤄지고, 섹터가 깊은 밸류에이션 조정을 보일 때까지 기다린 후, 명확한 수주 가시성과 안정적인 실적 달성을 보여주는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 부문에 최적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